

일 주 문



수륙고흥천도방생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은 5월 2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
에서 수륙고흥천도방생법회를 봉행
했다.



인양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봉행
인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
은 5월 6일 인양교도소에서 146명의 재소
자에게 5계를 수계하고 전체 재소자들에
게는 대중공양을 베풀었다.



수원사 아름다운 음악회 열어
수원포교당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5
월 12일 수원사 불교문화원 만물보전에
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었다.



한양대중사 선양 수행학림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5월 3-4일 월
정사 대법전과 상원사에서 '한양대중
사 선양 수행학림'을 개최했다.



울릉 해도사 불불 및 요사채 낙성식
전태종 울릉 해도사 주지 비룡 스님은 5
월 21일 오전 9시 30분 불불 및 요사채
낙성식과 독도유령제를 봉행한다.
(054)791-2471



동산불교대학 불화전시회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서울 시간
동 불일미술관에서 동산불교대학 불교미
술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제2
회 불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조계사 어버이날 경로행사



조계사(주지
원화)는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30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2008 어버이
날 경로행사 '어
르신, 당신은 대
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를 개최했다. 조계사가
주최하고 서울노인
복지센터와 종로노인
복지관, 조계사 불교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풍물패
길놀이 등 식전 행사와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진행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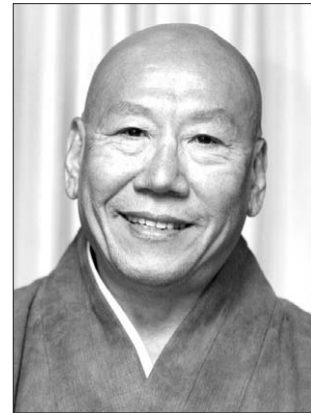
이전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중앙본부 및 부설
기관인 '행복한 가정상담소·이혼예방센터'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남도빌딩 206호로 이전했다.
(02)738-5586
화엄종장학회 서울 사무소가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로 이전했다. (02)730-0798

“장독대에서 가족 건강 비결 찾아요”

‘한 가족 한 장독 갖기 운동’ 펼치는 정산스님

“단순한 음식문화 체험 이상으
로 신비에 가린 사찰문화를 이해
하고, 인간의 정서와 자연의 만남
을 통해 올바른 삶의 생명력으로
회복시키고자합니다.”
사찰음식 연구·보급에 앞장서
은 정산 스님(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산촌 대표)이 ‘한 가족 한 장
독 갖기 운동’ 체험 행사를 갖는다.
도시 생활자들에게 장독이란
‘고향에 대한 향수’이거나 풍류팔
취 동화책에서 본 두꺼비의 보은
(報恩)이 전부일 터. 그러나 정산
스님에게 장독은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는 ‘웰빙’의 문
제이다. 스님은 잠시 있고 지내온
지난 날 어머니의 장독대에서 가

족 건강비결을 찾는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
전한 먹을거리를 인지시키고 자연
의 순환 원리와 교감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서울 인사동
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산촌
매장 앞에서 6월 1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 함께 장독갖기 체
험에 나설 계획이다. 상담은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한다. 스님의 말
에 따르면 한 가정 기준 1년간 50
만원의 비용이 든 우리 가족의 장
독대를 만들 수 있다. 향아리 15kg
1개·향아리 10kg 2개·된장
10kg·고추장 5kg은 1년간 관리 된
다. 간장 3kg은 행사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8월에는 벽제에 위치한 체험 교
실(산촌 분점)에서 장독 관리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 현장을 답사한
다. 11월에는 고추장·된장·매주
를 직접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고
구마도 굽고 인절미도 만들어 분
다. 내년 1월이면 된장을 담근다.
장이 익는 2월이 되면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에 오를 된장과 간장
을 맛 볼 수 있다.
“이런 장독 갖기 운동은 위협받
고 있는 한국인의 밥상에 천연의
맛을 선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의 고춧가



루, 참쌀, 콩 등으로 만들어진 장
담그기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전
통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족의
건강도 책임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2)733-0709
글=기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나눔 노래할 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된 ‘해피체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
하고 싶습니다.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려 합
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나눠주고 싶
다는 생각으로 뭉친 그룹이 있다.
4인조 보컬 그룹 ‘해피체어(Happ
y Chair)’다. 이들이 생명나눔실천
본부(이사장 일민)와 만났다. 4월
29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 ‘열
굴’인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
이다. 박은환(28)·장동혁(30)·나
정혁(26)·강대웅(31)씨 등 4명으
로 구성된 이 그룹은 4년여의 언
더그라운드 활동을 거쳐 지난해
에 첫 싱글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올 5월 중 ‘첫 번째 일기장’이라는
곡을 통해 정규 1집으로 본격적인
데뷔를 할 예정이다.
데뷔를 앞둔 시기, 홍보대사라
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
데 해피체어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의 홍보대사 제안을 듣자마자, 흔
쾌히 받아들였다. 평소 멤버들끼
리 장기기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눠왔기 때문이란.
“‘장기기증’이란 말은 많이 들
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요. 그런 분들께 생명나눔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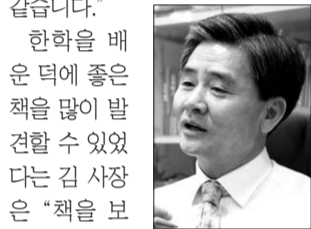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
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이들은 홍보대사 위촉식에 직
접 참석,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
실에 들어서자마자 장기기증신청
서부터 작성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
증에 대해 알리고, 공연할 때도 기
회가 될 때마다 생명나눔실천본
부의 홍보대사역할을 토크하
게 할 것입니다. 본부에서 주최하는
조혈세포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해피체어가 처음 마음처럼만 활
동한다면 생명나눔 사상을 일파만
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피체어는 5월 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연등축제
문화마당 ‘제8회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며 생명
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첫 번째 활
동을 시작했다. 김강진 기자

“지혜 보급하는 일에 남은 인생 헌신”

영광도서 40주년 맞은 김윤환 대표

“앞으로도 독자를 위한 양서 보
급의 역사를 지켜 나가며 순간적
인 이익에 타협하지 않는 차별화
를 전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독자
를 위한 양서 보급,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도(正道)이며 굽히지
않을 소신입니다.”
독서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책에 대한 경쟁력과 어려움을 호
소하는 이때 굳건히 40년 동안 부
산 경남 지역에서 양서 보급을 통
해 수많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성
장하는 곳이 있다.
부산 영광도서, 좋은 책을 선별
하고 독자를 위해 공급할 뿐 아니
라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환경에
서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 지원 사업 등 지역 발
전의 주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5월 7일 영광도서 40주
년을 맞아 대표 김윤환 사장을 만
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9남매
가 있었던 가정은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아버지께 한학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교육은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죠.
자립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학교
를 다녀야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책에 대한 사랑으로 발
전돼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한학을 배
운 덕에 좋은
책을 많이 발
견할 수 있었
다는 김 사장
은 “책을 보
는 안목을 아
버님께 물려받았다”며 “양서를 발
견하고 그 책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떠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내
가 걸어온 길이기도 앞으로는 ‘종
은 책을 독자에게’란 이 모토를 놓
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불경기 속 성공 전략은 ‘정도(正
道)’ 뿐이라는 것. 좋은 책을 선별
해서 제대로 공급한다는 단순한
철학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이끌고 한 평 남짓 노력에서 성공
을 일궈낸 원동력이라는 것이 김윤
환 사장의 설명이다.
40주년을 맞아 120여명의 직원
들과 ‘책 인생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는 다짐을 반복하
며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
다는 김윤환 사장. 앞으로의 행보
가 더욱 주목된다. 허성미 기자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덕숭총림 방장 원담 대종사 49재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원담)는 5월 4일 수덕사대웅전 앞에서 원담대종
사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혜정 스
님, 전국 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문도대표 설경, 문주대표 월담, 마곡사
주지법용 스님과 흥문포 국회의원, 최승우 예산군수 등 사부대중 1500
여명이 참석했다.
순효선기자

전북경찰청불자회 제2회 무진법회 봉행



전북지방경찰청 경승단(단장 원형, 금산사 주지)은 5월 3일 전주 결
리리야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회 무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형 스님과 전북경승실장 원혜, 원산사 경승실장 덕산, 성홍사 승
월, 전북불교회관 덕림 스님과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인, 경찰청불
자회 가족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2008 캠퍼스나눔 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는 5월 6일 서울 사랑의열매회
관 대강당에서 ‘2008 캠퍼스 나눔 도전’ 창단 발대식을 가졌다. 동
국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총 5개교에 5월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질 온도탑에는 나눔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젊은
의지가 사랑의 온도로 표시된다. (02)6262-3037
기연숙 기자

무각사 부처님오신날 특별사진전 개최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5월 2-19일 무각사문화관에서 사진작가김
태성씨의 특별기획사진전 ‘그림입니다. 업니’를 개최한다. 청학 스님
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속살까지 어떤 차가운 겨울 뱀발에서 밤
낮없이 일하느라 허리 한 번 펼 날 없었지만, 언제나 넉넉한 웃음과인심
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업니와 아부지들의 삶 그것이 큰 부처의 삶”
이라며 “전라도의 ‘생활(生活)’을 만나는 자리라고 행사를 소개했다.
양현선 전남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4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5월 22일 10:00~17:00까지
줄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 ▶과정별 교재 및 수련테일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명리학, 최면학) and Description.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문빌딩 2층)
전화 : 02) 582-0737
042) 255-0734~5